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792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jb.ucatholic.or.kr

6지구 - 마두동 성당



설립 2001년 10월 5일 전화 사무실 031-908-5901,2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번지

제1독서 여호 5,9ㄱ-10-12

화답송 시편 34(33),2-3,4-5,6-7(◎)9ㄱ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주셨네. ◎

제2독서 2코린 5,17-21

복음 환호송 루카 15,18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복음 루카 15,1-3,11-32

영성체송 루카 15,32 참조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믿을 건 가족뿐?



김청령 도미니코 신부
국내수학

오늘 우리가 들은 너무나 유명한 루카 복음의 이야기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거나 무슨 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께 희망을 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가족의 현실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재산이 많아서, 자녀가 비록 가산을 탕진하더라도 아무런 나쁜 마음 없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가족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그러한 곤경에 빠졌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줄 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만 주어야만 할까요? 여전히 남아 있는 “가족이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가족주의 전통”에 대해 이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말은 1960~80년대의 근대화 과정을 통과해 온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유하던 신념이었습니다. 정부의 ‘선 경제개발’ 전략은 모든 사회보장 및 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일들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바탕 위에서, 가족의 희생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가족이 친밀한 사람들의 정서적 공동

체와 공동생활공간 이상으로 사회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의 양극화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족공동체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를 연구한 사람들은 “가장 기초적 부분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가족을 통해 재생산되어 개인과 가족의 삶의 계층화, 양극화를 점점 더 심화시킨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몇몇 학자들이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 수능성적 1~2등급의 비율, 취업 시 임금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극화된 가족 삶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계층 하락을 하지 않으려고 어릴 때부터 총력 경쟁에 나서는 아이의 자율성과 개별성이 고려될 여지가 희박해집니다. 다른 한편에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주 방임 상태에 놓이고 학대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족이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서 가장 약한 자인 아이들이 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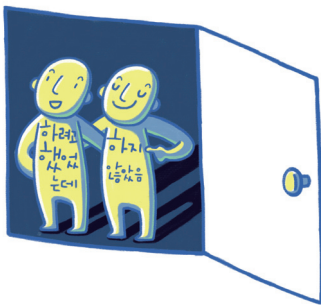
하느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곳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는 가족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닭이 울기 전에



할 일을 내일로 미뤄 두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일어나 손님을 맞았다.



- 선생님께서 저희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요?
- 내 이름은 '하려고 했었는데'입니다.
- 거참 희한한 이름도 다 있군요.
 그렇다면, 같이 온 동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아, 이 동자는 저와 쌍둥이입니다. 이름은 '하지 않았음'이구요.

나는 물었다.

- 당신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 '이루지 못하리'라는 마을에 살고 있지요.
 그러자 '하지 않았음'이 독촉했다.
- 어서 떠나자, 그 귀찮은 녀석이 쫓아올 거 아냐.
- 그 귀찮은 녀석이란 누구입니까?



그림 _ 구민정 엘리사벳

- '할 수 있었는데' 이지요.
 꼭 유령처럼 우리 뒤만 밟는다니까요.
- 나는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 내일로 미루려던 일을 오늘 해치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다.
- 닭이 울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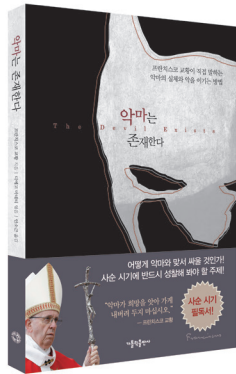
청년을 위한 고해성사 가이드북

론 머피 지음, 강대인 옮김 | 면수: 46면 | 2,000원
가톨릭출판사
문의 | 02-6365-1854(김소정 편집 담당) edit@catholicbook.kr

하느님과 진정한 화해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해성사 가이드북

가톨릭 청년이라면 적어도 1년에 두 번(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은 고해성사를 본다. 그러나 사실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워 1년에 두 번 보는 것도 벅찰 때가 있다. 특히 이제 막 세례를 받았거나, 고해성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청년들은 고해성사를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소책자가 나왔다. 바로 가톨릭출판사(사장: 김대영 디다코 신부)에서 출간한 《청년을 위한 고해성사 가이드북》이다. 이 책은 십계명이나 교회 가르침을 통해 성찰을 돕는 고해성사 길잡이들과는 달리, 일상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고해성사를 더 깊이 준비하도록 돕는 가이드북이다.



교황이 직접 말하는 악마의 실체와 악을 이기는 방법 악마는 존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디에고 마네티 역음 | 면수: 228면 | 12,000원
가톨릭출판사
문의 | 02-6365-1854(김소정 편집 담당) edit@catholicbook.kr

악마는 과연 존재하는가? 악마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분명한 경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교황님, 21세기에 악마에 대해 말하다니 옛날 사람이시군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악마는 존재합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

씀만이 악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이 사순 시기를 주고, 한 가지만을 확신하며 회개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자신의 품위나 다른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

이사야 1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이사 6,3)

이 환호는 우리가 미사 때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주님을 직접 모시는 천사들 - ‘사랍’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시다!’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돌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11,1)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7,14)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9,5)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52,7)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여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42,7) “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스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53,5)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사야서를 자주 읽었습니다. 사도들과 복음사자들은 이사야서를 인용해 복음을 전했고, 교회 초기의 교부들은 그 안에서 성탄부터 수난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한 말씀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도 전례 안에서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독서로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이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에 대해 드디어!!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1-39장, 40-55장, 56-66장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제1부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제1 이사야)이고, 제2부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오던 시절(기원전 6세기 중반)의 예언자(제2 이사야)이고, 제3부는 그 이후의 시대에 활동한 다른 예언자(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200년이 넘는 간격이 있는데, 한 예언자가 그토록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뒤의 예언자들이 앞선 위대한 예언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활동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를 한데 묶어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기원이 되는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결혼도 했고(8,1-4), 제자들도 있었습니다(8,16). 임금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37,2) 그가 임금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7,1-17; 38,1-8) 임금에게 가서 따져 묻기도 합니다(39,3). 또한 그가 활동한 곳이 예루살렘(6,1; 7,3; 38,1; 39,3)이라는 점, 사제나 고위 관리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을 언급하는 말씀을 남겼다(8,2; 22,15-24; 37,2,5)는 데서 우리는 그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귀족 가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러한 지위를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부터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잘 나가던 젊은 귀족 이사야를 이러한 예언자의 길, 때로는 성공하지만 실패를 더 많이 겪어야 하는 질곡의 삶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가 하느님의 부르심(소명)을 받는 장면 이사야 6장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짜야 임금이 죽던 해’라는 말로 소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어좌에 앉은 주님’(6,1)을 뵙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2-3절)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 안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4절). 이는 그가 뵈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확인입니다. 그분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5절). 그러자 천사 하나가 불타는 솥으로 그를 깨끗하게 만듭니다(6-7절). 그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가리오?”(8ㄱ)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8ㄴ) 이사야는 사명을 부여 받고 예언자로 파견됩니다(9-13절).

이 안에는 하느님이 진정한 임금이라는 고백부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임없이 우리 삶 안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과 현인들의 어리석음, 그들에 대한 징벌,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임금의 역할을 새로운 ‘씨앗’(임금)이 설 때까지 수행해야 하는 예언자의 책임 등, 예언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에도, 그 버거운 책무를 이사야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뵈는 놀라운 체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않고, 하느님을 찾지 않으며 주님을 찬미하지 않는 세태(5절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비판적 생각은 그의 심장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 예언자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이사 29,3; 마태 15,8; 마르 7,6) 우리 시대도 주님을 외면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성전에 모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흘러들으면서 우스갯소리나 소문에는 풍긋하는 귀, 사랑에는 메마르나 비안에는 풍요로운 입술, 자선에는 인색하고 욕심엔 한없는 손, 주님의 가르침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겠다는 굳은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시도다!’ 외치는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

선교사목국 성서사목부 담당

겨울의 마음에서 봄의 마음으로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 대신학교

사순절은 회심을 위한 시간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생각과 가치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모두가 회심, 회개로 번역되는 '메타노이아 meta-noia'의 의미입니다. 회심에 대해 묵상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회심이란 겨울의 마음에서 봄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겨울의 마음이란 불모의 밭, 생명이 시들어버린 자리입니다. 봄의 마음은 열매가 자라나는 대지이며, 결실을 향한 희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회심이란 겨울의 마음을 내려놓고 봄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삶의 결실을 향한 기쁨과 희망과 인내를 배우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겨울의 마음을 못내 벗어나지 못하고, 계절은 봄의 한복판으로 향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겨울의 마음에서 봄의 마음으로 건너가려는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는 두 가지 근원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먼저 혼란한 마음입니다. 갈라지고 흩어지고 분주하고 불안하여 혼란에 빠진 마음은 희망을 향해 움직여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를 원하고 추구하는 듯 하나 헛되이 애만 쓸 뿐이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경우는 대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올바르게 현명하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욕망들 사이에서 소진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교회는 잠시 내적인 침잠을 통해 욕망을 가만히 바라보며 절제의 덕과 지혜의 덕에 힘을 쓰라 권고합니다.

혼란된 마음이 제 자리를 찾는 곳에, 우리의 욕망은 생명이 이르는 길을 낼 것이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서진 마음입니다. 얼마나 자주, 오래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상처받았는지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부서지고, 남은 것은 자기 연민과 자신에 대한

실망 사이를 진자처럼 오가다 마침내 무기력한 절망으로 귀착됩니다. 부서진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영원처럼 겨울 속에 잡아 둡니다. 사실 부서진 마음은 봄의 새싹을 위해 부서진 두엄처럼 피상적인 성공과 즐거움에 도취된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참된 결실을 낳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서진 마음은 놀랍게도 생명과 희망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부서진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부서진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마음이 마술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서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탄식하고,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서진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바뀌어 기도하는 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마음으로도 끝끝내 기도하는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배우고 행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레너드 코헨은 그의 유명한 노래 "할렐루야 Halleluja"를 '부서진 마음'을 위한 '할렐루야 (찬가)'라고 말합니다. 놀랍고 때로는 수수께끼 같고 심지어 당혹스러운 이 노래를 제프 버클리를 비롯한 수많은 가수들이 불렀고, 이제 거의 현대인을 위한 '송가'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K. D. 령이야말로 이 노래가 희망의 노래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노래와 함께 마침내 겨울의 마음에서 봄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



레너드 코헨 "할렐루야 Halleluja"
노래: K.D. 령

밀알들의 봄맞이 들♥ "그리스도를 향한 우정"

밀알연수에 참가한 청소년 대표들은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자캐오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1박2일의 시간을 통해 소중한 배움을 얻었다는 친구들이 세상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1박2일 동안 내가 내 자신에게 생각했던 것들! 생각하는 것들!

자캐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나도 하나님께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친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고 느꼈다.



연수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있으면서 친구들을 배려하는 법,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루카 19장 복음말씀과 함께, 다양한 의사소통과 공감을 해보며 '우정'을 깨달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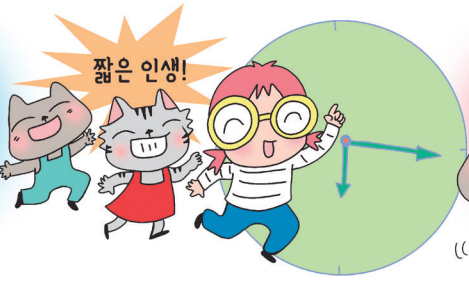
처음 보는 친구들과 협동하고 프로그램과 나눔을 하며, 각자의 본당을 돌아가 대표로서 친구들과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비비샘의  중고만화 김준희

시간

나쁜 생각,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자.

좋은 생각, 좋은 일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올바른 생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요~



4월 2(화) 20시 사목방문 - 백석동 성당
4(목)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제78차 전국회의 - CBCK

교구 소식

교구청 혼인교리

일시: 4/11(목) 19:30~22:30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장소: 교구청 지하 대회의실 /회비: 2만 원

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4/5(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1,2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4/6(토) 10시 장소: 덕소 성당

주교좌 의정부성당 사순특강 <신앙의 기쁨과 위로>

일시: 4/14(주일) 교중미사(10:50) 직후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3층)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4/1 (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경환 프란치스코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군중후원회 4월 월례미사 안내

일시: 4/10(수) 10시 /장소: 구리성당(구리시 안골로64번길 42)
미사집전: 유충현 시메온 신부(을지성당 주임)
대상: 군중후원회원 및 관심 있는 모든 분

빨나팔미사 안내 (정의평화위원회월례미사)

일시: 4/3 (수) 20시 장소: 호원동 성당

4월 평화사도 월례미사 -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4/1(월) 19시 미사: 강주석 신부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한국 천주교의 뿌리 : 중국 만주 성지순례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 밀알이 되신 조선 초대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님과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대상: 교구민(선착순 30명) /일시: 8/21(수)~27(화) 6박7일
장소: 서만자, 마가자, 소팔가자, 김대건 기념관, 백두산 등
비용: 옵션포함 약 195만 원 /문의: 031-850-149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기억합니다.

3월 31일은 전승규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6주기입니다.

미사 · 피정

행주 성당 성모 신심 미사(전대사)

일시: 4/6(토) 11시(미사, 묵주기도)
매월 첫(토) 11시에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 영성 배우기 피정

대상: 영적 깨어남을 갈망하는 모든 수도자와 평신도
종류: 당일 피정, 소그룹(20명), 단체 피정(44명)
강의내용: 머튼의 영성과 하느님 체험, 영적성장과 치유(수도자/평신도를 위한 월피정 실시:매월 둘째 토-일)
강사: 박재찬 안셀모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문의: 분도 명상의 집 051-582-4573

8지구 영성피정/금초성당

일시: 4/2(화) 12:30~16:30 /문의: 010-3495-8522
강의-미사: 권찬길 세례자 요한(참회와속죄성당 주임사제)

이한택 주교와 함께하는 첫 토 피정

일시: 4/6 10시~14시 미사(점심 제공)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031-952-6324

미사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100단

일시: 4/3(수) 13시~16:30
미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교구 담당사제)
장소: 풍동교육관 (식사동 514-26)
※성인 호칭기도와 함께하는 기도회
일시: 4/10(수) 14시~15:30 /장소: 동일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총무부 010-8729-0025

마리아사제 운동 첫 토요 신심미사와 체나콜로

일시: 4/6(토) 10시 미사, 11시 기도
장소: 지금동 성당(동부), 후곡 성당(서부)
준비물: 성모님 메시지 합본, 묵주
문의: 교구 체나콜로 봉사회 010-9272-4660

첫토성모신심미사

일시: 4/6(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전세버스대절-서울역 1,4호선 14번출구(9시 출발), 일산동구청주차장앞(9:30 출발), 인천주안역북광장(9시 출발), 동암역(9:5 출발), 4/4 17시까지 예약필수
문의: 02-379-8081, 010-4550-6955

예수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요? (요한7,26) / 심종혁 신부
일시/장소: 4/5(금) 10시~15:10/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예수회 후원회) /무료, 미사봉헌

찾아가는 피정팀 예수수도회

대상: 첫영성체피정, 복사, 청년, 교사, 자모, 엄마와딸피정, 단체 피정, 일일 신앙캠프
방법: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피정
문의: 010-4037-1609, 010-7236-4627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일시: 4/6(토) 09:30~12시, 10시 미사
장소: 호평동 성당(남양주시 호평동 556번지)
문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의정부지부 010-7131-2033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구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금) 21:30~02시 마두동 성당(4/5)
주제: 제 7주 치유된 감사의 삶
강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교구담당사제)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총무부 010-8729-0025

말씀과 함께 하는 소비녀 떼제 기도

4/6(토) 14시 /문의: 010-5906-8099

제주명현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울레길·오름 트레킹 (아래일정은 양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일시: 4/6~9(추자도), 4/12~14, 4/28~30, 5/4~7(추자도), 5/10~12, 5/15~17(제주성모의밤)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예수수도회 청년주말피정

영신수련 기반으로 한 침묵피정
일시: 4/13(토) 3사~14(일) 4시
하루피정 4/21(주일) 10~4시
대상: 미혼 젊은이(33세이하) *신착순
장소: 서울 오류동 수녀원 /010-9746-1585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피정

일시: 4/18(목)16:30~21(일)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2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교육 · 모집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연구원 양성과정 모집

모집일시: 3/24~4/7
모집대상: 4년제 대졸 이상인 40~50대
문의: 박문수 소장 010-3822-0906

의정부 가톨릭 경제인회 회원모집

가톨릭 신앙 안에서 경제인 상호간 정보 교류와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 하는데 함께하실 교우분들을 초대 합니다
문의: 사무총장 나경표 마르코 010-5289-3107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모집(일산복지관)

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어르신(3,4,5등급)
기간: 수시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문의: 031-975-1344 www.ilsanwelfare.or.kr 공지사항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활동 참가 가족/단체 모집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운영기시 6~7월)
한마음가족캠핑(1박2일), 한마음오리엔티어링 교실(1일)
주일학교 야외체험 활동(운영기시 3~11월)
캠핑야영, 오리엔티어링(보물찾기),
챌린지코스 /집라인 체험
문의: 031-840-0742(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청년성서모임 센터그룹공부 그룹원/봉사자 모집

대상: 만20세 이상 청년 신자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장소: 화정동성당 말씀의방
신청: club.cyworld.com/godloveujb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ujbbible@gmail.com으로 접수
문의사항: 말씀의방 031-979-7065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성가발성교실 회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중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 금 11시 /오후반 화, 수 19:30
신상옥과 함께하는 생활성가 -(월) 11시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4/8(월)부터 10주/ 문의: 02-338-3793
주최: 아쿠나스오르간아카데미

2019 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석사과정(5학기) /모집전공: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전공(CCM 작곡전공포함)
학위 및 자격증수여: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4/15(월)~4/26(금) 09시~17시
전형일 및 장소: 5/17(금)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충정로역, 서울역 하차)
문의: 02-393-2213~5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분도출판사 교부영성 특강

일시: 4/13(토) 14시~16시
주제: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라자로에 관한 강해
강사: 하성수 박사(한국교부학연구원 선임 연구원)
장소: 장충동 분도빌딩 5층 봉헌회관
수강료: 1만 원 /신청: 02-2266-7152

바오로상담소

일반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심리적 갈등, 정서적 위축, 대인관계 및 또래 친구문제, 과잉행동장애(ADHD) 및 우울
위치: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구파발전철역 15분거리)
문의: 02-381-1208, Daum카페 바오로상담소

은평성모병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20~65세 이하로써 심신이 건강한 남, 녀
봉사주기: 주1회 이상
안내봉사(봉사 요일 선택 가능:월-금)
호스피스(봉사 요일 선택 가능:월-주일)
봉사시간: 안내봉사-3시간(오전,오후 선택 가능)
호스피스-4시간(호스피스교육 이수자)
문의: 02-2030-3456(서경임수녀 /안내봉사자) 02-2030-4296(호스피스 센터)

송추성당 농장관리인(8천평) 부부모집

서류접수: 4/14까지 사무실 접수
면접: 서류심사후 추후 개별공지
기타: 숙소제공, 전기기술자 우대
문의: 송추성당 031-855-1225

성 소 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4/7 (주일) 9:3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5/5 (주일) 10시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한국외방선교수녀회	4/6(토) 14시, 4/7(주일) 10시, 14시	명동성물방	010-3015-1773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문의(미혼)	http://isvdb.creatorlink.net	0507-1306-1505

안내 · 기타

기적의 메달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일시: 04/13(토) 14시~17시
장소: 명동 교구청 별관
대상: 세례와 견진을 받은 관심있는 미혼여성
문의: 010-6625-0927(성 빈첸시오 사랑의 말회)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6 멕시코, 쿠바, 페루 12일 590만 원
5/13 동부유럽 12일 379만 원
5/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 원
6/2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 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모집

분야: 청소년활동지도자
우대: 교리교사 경력 등 /기간: 4/7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4/22 이태리 일주 12일 370만 원
5/14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14일 390만 원
6/3 발칸반도 및 메추고리에 11일 370만 원
7/1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영국 12일 4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일본성지순례 (가고시마,나가사키,아키타)

출발: 매월 1회, 4박5일 / 64만 원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5/1 6/4 이스라엘,오르단10일 289만 원
4/22 5/24 성모님발현 13일 389만 원
5/12 나가사키 949천 원, 4/7 다낭 129만 원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4/22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5/13 러시아 발트 3개국 10일 395만 원
5/14 독일 동유럽 4개국 12일 365만 원
5/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33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6/22(토), 7/20(토)
설명회: 4/27(토) 14시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070-4365-7297



성체성사(4) :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요한 6, 34)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예수님의 몸, 곧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을 “영성체(領聖體)”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위대하고 거룩한 영성체를 할 때에는, 미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으레 그 순서에 따라 성체를 받아 모시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깊이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성체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일치로 증진시켜 줍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얻는 주요한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91항)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여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또한 새롭게 합니다.

또한 “영성체는 우리를 죄에서 떼어 놓습니다. 영성체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이며, 우리가 마시는 피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줍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93항)

이처럼 성체성사는 우리 자신의 영신적인 이익을 위해 매우 유익하고 더 나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성체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성체를 통해 이루는 예수님과의 일치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일치이기도 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따라서, 영성체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이웃 사랑에 대한 사명 또한 확인시켜 줌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투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참되게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형제들인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97항)

성체성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따라서 성체를 받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 달라야 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루카 6,32) ☪